

□성명서□

**수입유제품을 찬양하는 유업계의 수장,  
국산원유와 낙농가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유업체는 어느 나라 기업인가!**

1.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지난 6.26일 언론 지상을 통해, 5~6년 뒤에는 “값싸고 질 좋은 무관세 유제품이 쏟아질 것”이라며, 원유가격 연동제가 구제역 이후 낙농가 증산 정책으로 2013년 도입되었다는 거짓주장까지 하며 낙농가와 약속인 원유가격 연동제 폐기를 주장했다. 유업계의 수장인 분이 수입유제품을 찬양하고 연동제 폐기 주장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 충청북도 낙농가들은 피가 거꾸로 쏟아 올랐다.
2.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0년도 유대협상 자리에서 유업계 대표자는 참석하지 않고 대리참석자인 실무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합의와 규정에 따른 협상범위를 무시하면서 백색시유 적자 주장과 함께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낙농가 원유생산 감축을 운운하며 생산자측 대표들을 겁박한다고 하니,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유업체 경영이념의 슬픈 이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3. 유업체는 분명 FTA 수혜기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고누적을 호소하면서도 뒷문으로는 혼합분유 수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유업체의 참 모습인가. 그러면서 백색시유 적자를 주장하며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업체의 주장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제품군별 생산원가와 손익 현황, 국산·수입산 원료 사용현황을 낙농가 앞에 공개하고 낙농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까지 낙농가가 생산한 피 같은 원유를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해온 유업체가 하루아침에 낙농가와 국산원유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약속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유업체가 낙농가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로 약자인 낙농가를 홀대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 유업체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합의정신을 거울삼아, 유업계대표가 협상장에 직접 나와 성실히 원유가격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낙농가와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유업체는 몇 배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낙농가들이 유업체에 고(告)하는 마지막 경고이다!

2020. 7. 14(화)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도지회  
낙농가 일동**

(주소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2길 66-10)